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 의학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김성원** · 김정우***
(충남대학교 · 경남대학교)

1. 머리말—전문 용어와 번역

번역자는 실제 번역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어진 원전 텍스트를 포함한 제반 여건을 분석하여 해당 ST의 번역에 적용할 번역 전략을 수립한다. 이때 번역의 목적이나 독자층 등도 주요한 분석 요인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번역 전략의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 자체, 곧 ST의 내용 유형과 특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ST가 과학기술 분야의 하나인 의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A-H00006).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교신 저자)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제1 저자)

있다면, 번역자는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에 작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독자들의 정감에 호소할 수 있도록 번역자의 주관적인 문장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문학 작품과 달리, 과학기술 텍스트의 번역자는 자신의 주관적 감정 이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텍스트의 번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 용어의 처리이다. 왜냐하면 전문 용어는 특정 분야의 지식이 집약적으로 응축된 결정체인 동시에, 텍스트의 서술을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 용어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인들로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언어를 가리킨다.¹⁾ 전문 용어는 다의성을 갖는 일반 단어와 달리, 개념과의 일대일 대응성을 가지므로, 명칭과 개념 사이의 항상성과 안정성이 전제된다. 이러한 전문 용어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전문 용어와 개념 사이에는 일의성, 투명성과 명시성, 간결성, 일관성 등의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²⁾ 또한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반 언어와 비교해보면, 전문 용어의 경우는 품사가 대체로 명사 또는 명사구이며, 구조도 단일어가 아니라 합성어³⁾ 구성을 이루고 있다. 전문 용어는 무엇보다도 개념 전달의 수단인데, 개념적 속성과 다른 개념과의 연관성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합성어야말로 이런 관점에서 다량의 전문 용어를 생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언어와 구분되는 이러한 특징까지 고려 사항에 넣는다면, 전문 용어는 번역학자에게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우선 대부분의 학술 분야에서 전문 용어가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긴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 용어는 번역의 결과이며, 따라서 번역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또한 번역의 결과인 전문

-
- 1) 전문 용어의 정의와 일반 특징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2007: 11-5)을 참고할 수 있다.
 - 2) 이들 특성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범인 ISO 1087-1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국립국어원(2007: 14-5)을 참고할 수 있다.
 - 3) 한국어의 조어법을 기술할 때, 연구자에 따라 1차로 단일어(simplex word)와 복합어(complex word)를 나눈 다음에 복합어를 다시 파생어(derivative)와 합성어(compound)로 나누는 체계도 있고, 1차로 단일어와 합성어를 나눈 다음에 합성어를 다시 파생어와 복합어로 나누는 체계도 있다. 여기서는 학교 문법에 따라 전자의 체계를 취한다.

용어는 개념과의 관계에서 일의성, 투명성, 간결성, 일관성 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용어와 다른 전문 용어만의 특성이 어휘 형태의 표면에 드러나야 한다. 이를 번역 과정에 맞추어서 다시 쓴다면 다음과 같다. 즉, 외국어 전문 용어는 ST이고, 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은 번역이며, 우리말 전문 용어는 TT가 된다. 이때 번역의 결과인 전문 용어(=TT)는 상응하는 개념과 일정한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일반적인 번역 과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문 용어의 번역은 그 단위가 통상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뿐이다.

본고는 영어-한국어 대역 형태로 되어 있는 의학 전문 용어집의 번역 양상을 조사하여, 원어와 번역어의 구조가 어떻게 대응되는가(번역의 유형)와 이들 각각에 어떠한 번역 기법이 적용되었는가(번역의 방법론)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목표와 범위를 간략하게 서술한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전문 용어의 번역과 관련된 업적을 비판적으로 개관하면서 기존 연구의 성취 정도와 아울러 한계를 알아본다. 따라서 2장은 본고의 출발점이 된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의학 전문 용어 대역집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데, 원어와 번역어의 구조 변화를 관찰하면서 각각의 형태에 적용된 번역 기법을 밝히게 된다.⁵⁾ 4장에서는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게 된다.

2. 연구사 개관

전문 용어의 번역을 주제로 한 연구는 필자 과문의 탓인지 몰라도 번역학 분야에서 현재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상태이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전문 용어 표준화와 관련하여 극히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
- 4) 전반부는 번역의 유형에 대한 논의이고, 후반부는 번역 기법 내지 방법론에 대한 논의이다.
 - 5) 원어와 번역어 사이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려면 원어와 번역어 각각의 구조 분석과 기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기존 대역어 처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도 물론 논의의 대상이 된다.

우선 번역학 분야에서 이 주제를 다룬 연구로는 김정우(2000, 2003)의 연구가 눈에 띈다. 김정우(2000)에서는 언어학 술어의 번역 문제를 번역 과정과 표현 과정으로 나누어서 고찰하면서 번역 단계에서 연합·통합 관계, 이론적 배경, 음역의 원칙 등을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표현 단계에서 국어의 조어법, 일상어 용법, 음상과 형태 길이, 표기 수단 등을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했는데, 논의의 모두⁶⁾에서 밝힌 대로 전문 용어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역의 원칙만을 피상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김정우(2003)에서는 자연과학 텍스트를 번역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신과학 교과서의 용어를 검토하여 번역어 표현의 문제를 몇 가지 제기했는데, 체계성과 음성 번역의 일관성, 중의적 표현의 처리, 한자의 병기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검토의 대상이 된 용어의 개체수가 많지 않고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이 나열식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전문 용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연구는 논의의 두 축인 ‘전문 용어’와 ‘번역’ 중에서 ‘번역’에 초점을 맞추었으면서도, 전문 용어의 번역과 관련된 체계적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전문 용어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이 주제의 일부를 다룬 연구로는 최기선(2007)과 고석주 등(2007)⁷⁾의 연구가 있다. 최기선(2007)에서는 ‘ISO 704’와 ‘2002년도 남북 용어 통일 표준화 원칙’을 소개하면서 이에 기초한 ‘영어 용어 한국어 대역 심의 지침’으로 ①원어와 대역어의 수준 일치화, ②순 우리말화, ③일관성, ④정확한 개념 표현, ⑤고빈도 선호, ⑥사전 등록 용어 선호, ⑦기능어 삭제 등 7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차를 지양하고 우리말로 의미 번역을 해야 한다는 둘째 항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대역어 선정과 관련된 지침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상 이들 지침은 이름만 ‘영어 용어 한국어 대역 심의 지침’으로 되어 있을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어(SL)에 대한 분석과 번역 과정에 대한 고려가 없이 우

-
- 6) “하나는 번역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술어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술 용어의 전체 체계 안에서 술어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물론 전자의 입장을 취하여 (중략)” (김정우 2000: 9)
- 7) 고석주 등(2007)은 참고문헌에 제시된 국립국어원(2007)과 동일한 저서이다. 여기서는 저자의 이름을 밝혀서 표기했다.

리말(TL)의 표현 과정(대역어 선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이는 저자 자신도 언급하고 있듯이(최기선 2007: 18), 위의 7개 항목이 기본적으로 ‘ISO 704’와 ‘2002년도 남북 용어 통일 표준화 원칙’을 한국어 전문 용어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용어의 표준화란 기본적으로 용어와 개념 사이의 관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지, 원어와 번역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최기선(2007)에서 제시한 ‘영어 용어 한국어 대역 심의 지침’은 그 제목과는 달리 ‘한국어 전문 용어의 표준화’에 논의의 중심이 놓여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인 번역 과정과 기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⁹⁾

고석주 등(2007)에서는 전문 용어 정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 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전문 용어의 정의와 전문 용어 표준화의 개념, 해외 각국의 전문 용어 정비 사례, 한국어 전문 용어 정리 사례,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문 용어의 사례 분석에 해당하는 제3장에서 두 개 절을 할애하여 각각 원어 용어 번역의 유형(2.4절)과 원어 용어 차용 시 대역 기준(2.5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원어 용어 번역의 유형에 대해서는 ①일 대 일 대응¹⁰⁾, ②축소 번역, ③확대 번역 등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 분류는 대체로 원어의 형태¹¹⁾가 번역어의 형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 대 일 대응은 원어의 형태를 온전하게 번역어에 반영한 것이고, 축소 번역은 원어의 형태 가운데 일부를 생략한 것이며, 확대 번

8) 이어지는 우리말 전문 용어와 띄어쓰기 문제도 궁극적으로 우리말 표현, 곧 대역어 선정과 관련된 것이다. 번역학 연구자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대역어의 선정이나 표현 자체보다, 대역어의 선정에 이르는 과정과 대역어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 번역 기법이다.
 9) 실제로 위의 7개조를 ‘ISO 704’와 비교해보면, 제1조는 ISO의 투명성, 제2조는 모국어에 대한 선호도, 제3조는 일관성, 제4조는 투명성과 적합성, 제5조는 파생력, 제6조는 투명성과 언어학적 정확성, 제7조는 언어적 경제성 등과 거의 비슷하다.
 10) 이 부류는 다시 원어가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원어가 파생어인 경우, 원어가 두 개 이상의 어휘 단위인 경우 및 원어를 음차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11) 의미의 반영 여부로 보아도 무방하다. 형태의 축소나 확대는 결국 의미의 축소나 확대가 되기 때문이다.

역은 원어에 없는 형태를 덧붙인 것이다. 다음으로 원어 용어 차용 시의 대역 기준에 대해서는 쉬운 어휘를 쓰고, 우리말 어휘를 쓰며, 형태론적 변형을 용인할 수 있다는 등 7개항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번역어의 표현 문제로 보인다. 이상에서 고석주 등(2007)은 원어와 번역어의 형태(의미) 대응 양상을 번역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번역어의 표현에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번역의 유형을 일부나마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타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번역 과정과 관련된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길 뿐만 아니라, 일부 용어의 이해와 사용에서 개념상의 혼란까지 노정하고 있다.¹²⁾

이상의 연구사 개괄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전문 용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다루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 용어의 번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3.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

3.1. 자료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한의사협회에서 2006년에 발간한 『필수의학용어집』의 영한 대역어 자료이다. 이 용어집은 황건(2007: 27)에 밝혀져 있듯이 의학계와 국어학계 및 용어학(사전학)계의 전문가들이 편찬에 참여했다고 하며¹³⁾, 그런 까닭에 대단히 정제된 대역어 자료로 볼 수 있다. 본고에

12) 예컨대 번역의 유형을 다룬 2.4절을 보면, 일 대 일 대응의 사례에서 원어의 구조 분석(단일어, 파생어, 구형 합성어)과 번역 방법(음차)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대역 기준을 다룬 2.5절의 소제목을 보면, ‘원어 용어 차용 시 대역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차용’과 ‘번역’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차용’은 ‘번역’의 한 방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13) 물론 번역학자의 참여가 없었음은 아쉬운 점이지만, 용어의 선정에 인접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거의 다 참여했다는 점은 이 용어집이 우리의 연구와 관련하여 이 분야의 대표성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 용어집의 편찬 경위는 황건(2007: 26-28)을 참고할 수 있다.

서는 이 가운데 일부(영어 표제어 r항)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 대역어의 수효는 영어 원어 표제어 419개와 동일한 표제어 아래 관련어 형식으로 배열된 부표제어 258개를 합쳐서 모두 677개이다. 한편 이 용어집의 <일러두기>를 보면 올림말 선정 기준과 작업 원칙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번역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다.

용어집의 체재를 보면, 아래 (1)에서 보듯이 표제어를 왼쪽에 제시하고 오른쪽에 대역어를 제시한 전형적인 대역집 형태를 띠고 있다.

- (1.a) **rachischisis** 척추갈림증
- (1.b) **rabies** 광견병, 미친개병
- (1.c) **radiation** 1.방사선, 2.방사, 부챗살
 ionizing r. 이온화방사선
 scattered r. 산란방사선
 whole-body r. 전신조사
- (1.d) **radical** 근치-
 acid r. 산기

위에서 (1a)는 가장 일반적인 표제어(원어)와 대역어(번역어) 제시 형태이며, (1b)는 두 가지 대역어가 엇비슷하게 널리 사용된다고 보고 나란히 배열해 둔 형태이다. (1c)와 (1d)는 표제어를 다의어(polysemy)로 보고 번호(1, 2 등) 다음에 각각의 대역어를 제시하고¹⁴⁾, 그 아래 관련된 원어(합성어 혹은 구)를 부표제어로 나열하고 각각의 대역어를 제시하고 있다.¹⁵⁾

14) (1c)의 2에 제시된 대역어 가운데서 ‘부챗살’이 의학 전문 용어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실제 의학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15) (1c)의 마지막 부표제어 ‘whole-body r(adiation)’를 ‘전신조사’로 번역한 것은 다른 항목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설령 ‘전신조사’만으로도 원어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신조사방사선’으로 표현해야 부표제어의 위상에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조사(照射)’라는 표현이 더 들어가 (후술되는) 이른바 ‘비대칭 번역’의 하나인 ‘확대번역’의 용례가 될 것이다. 한편 (1d)도 표제어와 부표제어를 상하 순서로 배열했는데, 부표제어의 대역어로 표제어에 없는 의미(‘기’)가 들어가 있다. 정작 표제어의 대역어로는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근치-’라는 표현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3.2. 번역의 유형

일반적으로 번역의 유형이라고 하면 ST와 TT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A→B 번역이나 B→A 번역으로, 혹은 ST에 대한 충실성 여부에 따라 직역과 의역으로 나누거나, ST와 TT의 상호 관계에 따라 행간번역과 발췌번역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는 번역의 단위가 최소한 문장을 넘는 텍스트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번역 단위가 대체로 단어 내지 구를 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분류가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번역의 단위가 단어인 경우에 한하여 번역의 깊이(형태 혹은 의미 번역의 정도)와 폭(구조 변화의 정도)을 번역 유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번역의 깊이와 폭을 이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번역의 유형

1.1. 번역의 깊이

- a. 영번역
- b. 음성번역
- c. 의미번역
- d. 혼용번역

1.2. 번역의 폭

- a. 대칭 번역
- b. 비대칭 번역
 - ㄱ. 축소번역
 - ㄴ. 확대번역

번역의 깊이에서 (2.1.1a) 영번역은 외국어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예: computer), (2.1.1b) 음성번역은 외국어의 음성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며(예: 컴퓨터), (2.1.1c) 의미번역은 외국어의 뜻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예: 전산기), (2.1.1d) 혼용번역은 음성번역과 의미번역이 혼재된 것이다(예: 아미노산 ← amino acid).¹⁶⁾

16) 뜻글자인 한자를 가진 중국인들은 음성번역을 하면서도 그 안에 정교하게 의미를 실어놓는 혼용번역을 즐기지만, 소리글자인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번역의 폭에서 (2.1.2a) 대칭 번역은 원어의 형태(의미) 구조가 번역어에 온전하게 반영되는 것이고(예: absolute space → 절대 공간), (2.1.2b) 비대칭 번역은 원어의 형태 구조가 변하는 것으로, (2.1.2b¹⁷)의 축소번역은 원어의 형태(의미)가 번역어에서 줄어든 것이며(예: one-shot color camera → 원샷 카메라), (2.1.2b¹⁸)의 확대번역은 원어의 형태(의미)가 번역어에서 늘어난 것이다(예: information network → 정보 처리망).¹⁷⁾

먼저 번역의 깊이에 대해 조사해 보자. 분석 대상이 된 677개의 전문 용어 가운데, 번역을 하지 않고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온 영번역은 예상대로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음성번역은 모두 31건이 나타났는데, (3.a)처럼 대역어가 음성번역 형태로만 표기된 것(24건)과 (3.b)처럼 음성번역¹⁸⁾과 의미번역 형태가 나란히 표기된 것(5건), (3.c)처럼 음성번역과 혼용번역 형태가 나란히 표기된 것(2건)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3.a) reovirus 레오바이러스

(3.b) rapport 라포, 친밀관계

(3.c) RNA ⇒ ribonucleic acid 리보핵산, 알엔에이¹⁹⁾

음성번역과 의미번역이 혼재된 아래의 (4)와 같은 혼용번역은 19건²⁰⁾으로 조사되었다. (4.a)에서는 ‘에스테르’가 음성번역 형태이고 접두사 ‘재(再)-’와 접미사 ‘-화(化)’는 의미번역 형태로 되어 있으며, (4.b)에서는 ‘류마티스’가 음성

방식이다. 예컨대 원어 Buddha를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발음을 취해 ‘浮屠’, ‘浮圖’ 등으로 표기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의미를 실어 ‘佛陀’로 표기했다. 이런 표기에 따르면 Gautama Buddha는 말하자면 한자 ‘불’(人+弗)에 보이듯이 ‘사람이면서도 이미 사람의 경지를 초월한 각자(覺者)’가 되는 셈이다.

- 17) 이들 용례는 고석주 등(2007: 199-201)에서 취했다. 어휘 단위의 수효를 기준으로 삼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 18) 이 음상은 프랑스어 발음에서 비롯되었다. 영어의 입장에서든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외래어이다.
- 19) 이 용례는 두자어(acronym) 구성으로 된 원어를 철자대로 읽은 ‘알엔에이’와 혼용번역의 형태를 취한 ‘리보핵산’이 병기되어 있다.
- 20) 위 (3.c)는 음성번역과 혼용번역의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포함되었지만,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음성번역 쪽으로 귀속시켰다.

번역 형태이고 ‘모양’이 의미번역 형태로 되어 있다.

(4.a) **reesterization** 재에스테르화

(4.b) **rheumatic** 류마티스모양

기타 627건은 대역어가 모두 의미번역 형태로 표기되어 있었다. 번역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대다수는 의미번역(92.6%)이었고, 다음으로 음성번역(4.6%)과 혼용번역(2.8%)이 뒤를 이었고, 영번역은 단 한 건의 용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번역의 폭에 대해서 조사해 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대칭 번역과 비대칭 번역은 원어의 형태(의미) 구조가 번역어에서 변했느냐의 여부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표제어는 대칭번역이 되고 합성어나 구로 이루어진 항목만이 번역의 대칭성 여부를 논의할 대상이 되는데, 표제어²¹⁾ 중에는 합성어나 구가 없어서 258개의 부표제어들이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 분석 대상이 된 258개의 부표제어 중에서 22건만이 비대칭 번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칭 번역이었다. 다음의 (5)에 비대칭 번역의 용례를 보이기로 한다.

(5.a) **rale** 거품소리, 수포음 → **moist rale** 거품소리, 수포음

(5.b) **rate** 1.속도, 2.율, 3.정도, 4.양 → **case fatality rate** 치명률

(5.c) **relationship** 관계 → **doctor-patient relationship** 의사환자관계

(5.d) **rest** 1.안정, 2.받침, 3.잔류물 → **absolute bed rest** 절대 안정

위에서 (5.a)는 주표제어의 번역어가 ‘거품소리, 수포음’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표제어인 ‘dry rale’도 ‘마른거품소리, 건성수포음’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어를 보면 주표제어와 동일하게 그냥 ‘거품소리, 수포음’으로 되어 있다. ‘수포음’에 보이듯이 개념상으로 ‘거품소리’와 ‘젖은거품소리’가 동의어가 되는 관계로 ‘moist’(젖은, 습성)를 번역어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마른거품소리’(건성수포음)를 대역어로 인정할 이상, ‘젖은거품소리’(습성수포

21) 앞서 (1)에 굵은 글자로 표기된 주표제어를 말한다. 조사 대상이 된 r-항목의 주표제어는 모두 단일어(simple word)여서 원리상 대칭 번역의 유형으로 되어 있다.

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5b)는 번역 과정에서 ‘case’(환자, 증례)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학에서 운위되는 모든 비율 관계가 증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잉여적인 의미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²²⁾ (5c)는 원어에 있는 부호(하이픈)가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었는데, 단순한 부호일지라도 분명 구조의 비대칭성을 유발한 것이므로 용례(8건)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번역어에서 이 부호를 살려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d) 역시 ‘침대에 누운 상태로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것’과 ‘절대 안정’이 의미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부표제어에 있는 ‘bed’를 번역 과정에서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주는 것이 나아 보인다.²³⁾

한편 비대칭 번역의 용례로 조사된 22개 항목 중에서 17개 항목은 축소번역이었고, 4개 항목만이 확대 번역이었으며, 1개 항목은 축소번역과 확대번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 (6)에 확대 번역의 용례를 보인다.

- (6.a) **rate** 1.속도, 2.율, 3.정도, 4.양 → cardiac rate 심장박동수
- (6.b) **retraction** 뒷당김 → lid retraction 눈꺼풀뒷당김
- (6.c) **resistance** 내성, 저항, 저항성 → total pulmonary resistance 폐혈관저항

위 (6.a)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제어 ‘rate’에 없는 의미인 [박동]을 덧붙였고, (6.b)에서도 ‘lid’(꺼풀)를 ‘eyelid’(눈꺼풀)로 해석해서 번역어에 확대된 의미 [눈]을 반영했다.²⁴⁾ (6.c)에서는 ‘total’의 번역이 누락되는 동시에 ‘pulmonary’[폐]의 의미가 ‘폐혈관’으로 확대되어 번역어에 반영되었다.

22) 부표제어로 제시된 ‘pregnancy rate’의 번역어가 ‘임신률’, ‘relaxation rate’가 ‘이완률’로 각각 되어 있는데, 현행 국어 표기법상 ‘임신율’과 ‘이완율’이 맞다.

23) 이와 유사한 용례로 reflex(반사)의 부표제어로 제시된 ‘eyelid closure reflex’도 ‘눈감음반사’로 되어 있다. ‘눈을 감는 것’과 ‘눈꺼풀을 닫는 것’을 의미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표제어가 사용되는 현상이 일상적 담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어의 형태 의미가 온전하게 반영되는 것이 나아 보인다.

24) 물론 영어 원어 ‘lid’의 의미에 ‘eyelid’의 뜻도 있지만, 이 용어집에 ‘eyelid’라는 단어가 별도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대 번역의 용례로 간주했다. 이 용어집의 편찬에 의학 전문가도 참여했으므로 번역의 정확성 여부는 검증되었으리라고 본다. 한편 비대칭 번역의 의미에 대해서는 번역 방법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논의된다.

이상에서 번역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번역의 깊이에서는 대다수(92.6%)가 의미번역이었고 음성번역(4.6%)과 혼용번역(2.8%)이 소수 나타났으며, 번역의 폭에서는 대략 8.5%(22/258) 정도의 비대칭 번역이 나타났는데 그 대부분(17/22)은 축소번역이었다. 축소번역의 경우는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원어의 형태(의미) 구조를 살려주는 편이 번역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번역의 방법

번역의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대체로 비네와 다르벨네(Vinay and Darbelnet)의 비교문체론이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된다. 여기서 제안된 7가지 번역 기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차용(L'emprunt)은 원천언어의 단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목표언어 텍스트에 사용하는 번역 절차이다. 모사(Le calque)는 원천언어의 표현(주로 합성어 혹은 구)을 옮길 때 그 조어 방식이나 통사 구조 등을 그대로 모방해서 목표언어 텍스트에 사용하는 번역 절차이다. 차용이 단어의 형태를 그대로 빌려오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모사는 단어와 단어(혹은 구)의 통합관계 내지 의미연결 관계를 빌려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축자번역(La traduction littérale, Mot-à-mot)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의 문체적 변용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문법 규칙에 따라 번역을 수행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전위(La transposition)는 원천언어에서 목표언어로 넘어오면서 품사가 바뀌는 번역 절차로, 번역을 수행했을 때 원천언어 단어의 문법적 자격이 목표언어에서 달라지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변조(La modulation)는 번역자가 원천언어 텍스트에 투영된 시점 혹은 관점을 목표언어에서 바꾸는 번역 절차로, 현상적으로 보면 각종 표현 방식의 변화를 가리킨다. 등가(L'équivalence)는 동일한 상황이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텍스트에서 전혀 다른 문장이나 문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러한 번역 과정에 적용된 번역 절차를 가리킨다. 변안(L'adaptation)은 원천언어 텍스트의 상황을 목표언어 텍스트에서 재현할 수 없

25) 비교문체론의 번역 기법에 대해서는 구정연(1999)과 전성기 역(200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을 때, 유사한 상황으로 대체해서 번역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이상의 번역 기법 가운데서 앞의 세 가지는 직접번역이고, 뒤의 네 가지는 간접번역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관심사는 단어(혹은 구) 단위의 번역이므로 적용이 가능한 번역 방법은 직접번역 세 가지(차용과 모사 및 축자번역)과 간접번역의 전위 정도이다. 변조는 문장 서법이나 표현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또 등가와 변안은 ST의 언어 형식을 크게 벗어나는 절차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사에 걸맞은 번역 기법으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많은 용례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번역 방법은 물론 단어 대 단어 번역, 곧 축자번역이다.²⁶⁾ 이는 원래 기본적인 문법 규칙만 적용해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번역 기법을 말하는데, 단어를 번역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어 단어에 담긴 의미를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 번역어로 재현해놓는 것을 뜻하므로 특별히 번역 기법이라고 할 만한 내용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머지 번역 기법, 곧 차용과 모사 및 전위가 적용된 용례의 조사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한다.

표제어와 부표제어를 모두 포함하는 67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축자번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인 것은 전위(140건)이고, 다음으로 차용(50건)²⁷⁾이었으며, 모사는 단 한 건의 용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다른 범주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보통 텍스트 번역 기법에서 말하는 품사의 변화이고(135건), 다른 하나는 합성어 구성 요소의 자리바꿈²⁸⁾이었다(5건). 품사 변화는 주로 영어 원어의 형용사가 우리말에서 명사로 번역되는 것이 대부분(134/135)이었고, 동사가 명사로 번역되는 것(1/135)도 있었다. 아래 (7)-(8)에 용례를 보이기로 한다.

-
- 26) 위 (6a)에서 원어 ‘cardiac/heart rate’를 ‘심장박동수’로 옮긴 것은 명시화를 동반한 축자번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물론 같은 논리가 비대칭 번역의 용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 27) 이 수치는 앞서 번역의 깊이에서 논의한 음성번역과 혼용번역의 용례를 모두 합한 것이다.
- 28) 이것은 예컨대 원어 ‘A-B’로 이루어진 합성어를 우리말로 ‘[B]-[A]’로 번역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A]와 [B]는 각각 원어 A와 B의 의미를 가리킨다.) 전위를 가리키는 술어(transposition)를 고려하면 이런 유형이 오히려 품사 변화보다 전위의 본래 의미에 어울린다고도 하겠다.

- (7.a) **radiation** 방사선 → ionizing radiation 이온화 방사선
 (7.b) **radiation** 방사선 → scattered radiation 산란 방사선
 (7.c) **radiosensitive** 방사선민감²⁹⁾
 (7.d) **receptor** 수용체, 수용기 → sensory receptor 감각수용체

위 (7)을 보면 모두 원어의 품사인 형용사를 번역어에서 명사로 옮긴 용례들인데, (7a)와 (7b)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이루어진 둘째 요소를 우리말 번역에서 각각 ‘이온화’와 ‘산란’이라는 명사로 처리했다. 이러한 품사 변화는 우리말에서 명사와 명사가 병치될 때 선행 명사가 자연스럽게 후행 명사를 형용사적으로 수식할 수 있다는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c)는 원어의 형용사적 기능을 하이픈으로 처리한 것인데, 항상 합성어(구)의 선행 요소로만 쓰인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7d)는 형용사로 되어 있는 원어를 우리말에서 명사로 옮긴 전형적인 용례이다.

- (8) **rigidity** 경직 → decorticate rigidity 걸질제거경직

위 (8)의 용례는 동사로 된 원어의 첫째 구성 요소를 우리말 번역에서 명사로 옮긴 것인데, 원어에 이미 형용사적 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사전상으로는 원어 ‘decorticate’의 기능이 동사(‘제거하다’)로만 등재되어 있다.

- (9.a) **rate** 1.속도, 2.율, 3.정도, 4.양 → scatter-maximum rate 최대산란비
 (9.b) **reaction** 반응 → adverse drug reaction 약물부작용
 (9.c) **respiration** 호흡 → labored respiration 호흡곤란
 (9.d) **rigor** 1.떨림, 2.경직 → rigor mortis 사후경직
 (9.e) **rhinoplasty** 코성형술 → augmentation rhinoplasty 코높임술

위 (9a)에서는 원어의 배열 순서가 우리말 번역에서 뒤바뀌어 나타나고 있

29) 이런 번역 기법은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바로 아래에 보면 ‘radiosensitization’이라는 표제어가 보이는데, (7c)와 동일한 ‘방사선민감’이라는 번역어가 제시되어 있다. 원어는 다른데 번역어가 문장부호만 빼면 거의 동일해진 경우이다.

으며³⁰⁾, 원어가 세 단어로 되어 있는 (9b)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이 세 단어의 위치를 엇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9c)와 (9d)도 원어의 구성 요소 순서를 우리 말 번역에서 바꾸어 놓은 용례이다. (9e)도 이와 유사하지만 원어의 1차적 의미인 ‘코성형술’의 가운데를 절단하고 접두어 ‘높임’의 의미를 집어넣은 특이한 용례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연어(collocation) 관계를 고려한 번역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음 (10)은 이들 전위의 용례와 조금 다른 측면을 보이는 용례이다. 원어 ‘closed’의 의미([폐쇄])를 역([비개방])으로 파악한 데 주목하면 일견 텍스트 번역에서 예컨대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변조의 기법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용례가 하나밖에 없고 관점의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지나친 측면이 있어서 그냥 넓게 보아 축자번역의 범주에 집어넣어 처리했다.³¹⁾

- (10) **reduction** 1.맞춤, 교정, 2.환원, 축소
→ closed reduction 비개방교정(술)

이상에서 살펴본 번역의 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이 된 번역 자료 가운데 축자번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전위의 기법(140/677건)이고, 다음으로 차용의 기법(50/677건)이 뒤를 이었지만, 직접번역 기법의 하나인 모사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위의 기법을 다시 분석해보면, 품사의 변화가 대부분이었고(135/140건), 단어의 자리바꿈이 일부 있었다(5/140).

30) 원어의 ‘scatter-maximum’ 어구는 원래 <서술어+객어>의 구조였는데, 이것이 하나의 명사구로 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어순은 한국어에서 당연히 <객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바뀌게 된다.

31) 이는 아래에 나오는 ‘open reduction’(개방교정술)과의 계열 관계를 고려한 의미있는 번역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본고는 영어-한국어 대역 형태로 되어 있는 의학 전문 용어집의 번역 양상을 조사하여, 원어와 번역어의 구조가 어떻게 대응되는가(번역의 유형)와 이들 각각의 번역에 어떠한 번역 기법이 적용되었는가(번역의 방법론)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는 조사 대상 자료의 번역 단위가 단어인 점에 주목하여 번역의 깊이(의미 번역의 정도)와 폭(구조 변화의 정도)을 번역 유형으로 제안했다.

번역의 깊이에서 영번역은 외국어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예: computer), 음성번역은 외국어의 음성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며(예: 컴퓨터), 의미번역은 외국어의 뜻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예: 전산기), 혼용번역은 음성번역과 의미번역이 혼재된 것이다(예: 아미노산 ← amino acid). 번역의 폭에서 대칭 번역은 원어의 형태(의미) 구조가 번역어에 온전하게 반영되는 것이고(예: absolute space → 절대 공간), 비대칭 번역은 원어의 형태 구조가 변하는 것으로, 비대칭 축소번역은 원어의 형태(의미)가 번역어에서 줄어든 것이며(예: one-shot color camera → 원샷 카메라), 비대칭 확대번역은 원어의 형태(의미)가 번역어에서 늘어난 것이다. 실제 자료를 조사한 결과, 번역의 깊이에서는 대다수(92.6%)가 의미번역이었고 음성번역(4.6%)과 혼용번역(2.8%)이 소수 나타났다. 번역의 폭에서는 대략 8.5%(22/258) 정도의 비대칭 번역이 나타났는데 그 대부분(17/22)은 축소번역이었다.

번역의 방법을 조사하는 기준으로는 비교문체론에서 논의되는 7가지 번역 기법을 채택했는데, 실제 자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이 된 번역 자료 가운데 축사번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전위의 기법(140/677건)이고, 다음으로 차용의 기법(50/677건)이 뒤를 이었지만, 직접번역 기법의 하나인 모사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위의 기법을 다시 분석해보면, 품사의 변화가 대부분이었고(135/140건), 단어의 자리바꿈이 일부 보였다(5/140).

이상의 조사 결과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어의 음성 정보를 차용한 음성번역(차용)의 용례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어 어휘 가운데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은 10% 미만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전문 용어의 번역에 참여한 작업자들이 우리말 번역 표현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을 방증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품사를 다르게 처리하거나 어순을 뒤바꾼 전위의 용례가 20%(140/677건) 넘게 나타났다는 점도 위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의학 전문 용어의 번역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양상을 유형과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표본 자료의 수효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전문 용어의 번역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처방적 논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본고의 조사 결과를, 일반 텍스트 번역과 전문 용어의 번역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일반론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³²⁾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2007) 『전문 용어 연구, 정리 현황과 과제』, 서울: 태학사.
- _____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_____ (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서울: 국립국어원.
- 구정연 (1999) 『비교문체론적 번역방법에 관한 연구: 프랑스어의 한영 번역 텍스트의 대조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 구희산 외 (2001) 『음성과학 용어 번역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김광수 (2009) 「남북한 생물학용어의 사용 실태와 통일 방안」, 『인문논총』 24: 79-107.
- 김정우 (2000) 「언어학 술어 번역의 체계화 문제」, 『번역학 연구』 1(2): 1-25.
- _____ (2003) 「자연과학 텍스트의 번역 방법론 시론」, 『번역학 연구』 4(1): 27-49.
- 이현주 (2007)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본 전문 용어」, 『새국어생활』 17(1): 69-88.

32) 특히 대역집에 나타난 전문 용어의 뜻풀이뿐만 아니라 실제 문장에서 표현된 전문 용어의 문맥적 의미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과, 분야별로 전문 용어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본고의 명백한 한계이다. 대규모 전문 용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익명의 심사자 지적)

전성기 역 (2003)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번역학 총서 10).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최기선 (2007) 「전문 용어의 표준화」, 『새국어생활』 17(1): 11-24.

한유석·설근수 (2004) 『한국어 시소러스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황 건 (2007) 「의학 용어의 순화와 미래」, 『새국어생활』 17(1): 25-39.

[Abstract]

The Translation Types and Methodology of Technical Term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Medical Ones —

Kim, Sungwon · Kim, Jeong-Woo
(Chungnam University ·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has a purpose; that is, to clarify the types and methodology of translation of technical terms by investigating the English-Korean word pairs(ST-TT) in *Essential Medical Terminology*(2006). Thi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we have proposed some concepts as criteria to analyse the patterns of transl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translation unit in question. They are the depth and the width of the translation.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it has been revealed that most cases are semantic translation(92.6%), a few cases are phonetic translation(4.6%) and mixed translation(2.8%) concerning the depth of the translation; and a few cases(8.5%) are asymmetrical translations, most of which are reduced types.

As for the methods of translation,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most frequent cases are made by that of transposition(20.6%) and the second ones are by the borrowing(7.4%) except the cases made by word-to-word translation. In the case of transposition we have witnessed the shift of parts of speech from ST to TT in almost all of the examples(96.4%), and that of word order in a few examples(3.6%).

The conclusions as above are showing the fact that the persons involved in the translation of medical technical terms paid much attention to the expression in target language.

▶ Key Words: technical terminology, medical technical terms, types and methodology
of the translation, transposition, borrowing

김성원

충남대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sungwonk@cnu.ac.kr

관심분야: 문헌정보학, 정보조직, 정보표현

김정우

경남대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분야: 번역사, 번역 일반이론

논문투고일: 2011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04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2일